

생명과 의 실체를 깨닫고 먹게 해주신 이기신 하나님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동시에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악을 더 알게 되었으며, 이후 마귀인 선악과가 인류를 지배하는 주체영이 되었던 것이다.

성경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며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었다. 하나님의 신은 선한 신이므로 선한 것을 모를 리 없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이 세상만물을 지었는데 지은 바 모든 만물이 보기에 선했더라'고 말씀하고 있다.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는 선한 것만 보았으니 선한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고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동시에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악을 더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란 '선 위에 악을 더 알게 하는 마음'인 것이다.

그런데 악을 아는 마음은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은 마귀의 영이다. 따라서 선악과는 마귀인 것이다.

마귀인 선악과가 그때부터 인류를 지배하는 주체영이 되었다.

그러므로 선악과란 곧 현재 인간 각자 속에 있는 '나라는 주체영'인 것이다.

이긴자 출현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정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제일 먼저 에덴동산 안에 있었다는 선악과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인류의 죽음과 온갖 고통의 근원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데 있다는 성경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에덴동산에서 내쫓기고 세세토록 고통과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드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는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그런 비극이 생겼다면 그 뱀은 누가 만들었는가? 뱀을 만든 자에게 원초적인 책임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선하니 선하니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세세토록 그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는가? 또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전지의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얼마 안있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내다보셨을텐데, 그러면 그전에 그 나무를 베어버릴 수는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던 뱀을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죽여버릴 수는 없었는가?

그리고 처음부터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지 않았는가?

이래저래 우리는 인류의 비극을 잉태시킨 이 일에 대해 하



구세주 조희성님

선악과 사건 이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철천지 원수마귀를

발등상시키고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계획을 밝히고 있다.

마귀를 없앨 수 있는 이긴자가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는 모습이

묵시록에는 일곱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주의 재창조와 인류의 탄생과 비극,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성경에 적어놓았던 것이다.

나쁘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추정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셨다는 가정 아래 나오는 결론이다.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말해 악의 근원인 마귀를 이기지 못하셨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의문이 저절로 풀리게 된다.

선악과 사건 이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철천지 원수마귀를 발등상시키고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계획을 밝히고 있다. 마귀를 없앨 수 있는 이긴자가 나오기를 묵시록에는 하나님께서 고대하는 모습이 일곱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다.

인류의 비극 과연 하나님때문인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셨다는,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패배하였다는 추정을 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배한 이후 육천 년이 흐르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이긴자를 키워왔다면 그 이긴자가 이 세상을 다시 마귀로부터 회복하기까지는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어 왔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적이 되는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마귀가 그 전략과 전술을 눈치채지 못하게 가려서 성경에 적어놓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성경 창세기서를 이런 각도에서 자세히 상고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재창조와 인류의 탄생과 비극,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마귀가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성경에 적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마귀가 인간의 마음 속에 주체영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차대한 비밀의 말씀을 죄인인 인간들의 눈에 띄게 했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 당신이 마귀를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을 완성하신 후 마지막 구원의 때가 되어야 당신의 임의로 풀려지고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성경을 해석하면 구구한 억측과 확실한 난무할 뿐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해석의 오류가 있어왔는가? 현재에도 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서로 자기네 교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반복질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인간의 주체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다.*

조희성님의 발자취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되시는 그 날!

감람나무 우리 엄마

감람나무 우리 엄마 발자취마다 피 땀 냄새	천 번만 번 죽고 죽어 최후까지 건디는 길
천 번만 번 곤두박질 갖은 포학당하셨네	구세주의 우리 엄마 따라가면 영생하리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소탕하여 박멸하고	엄마께서 그 얼마나 외쳤던가 우셨던가
육천 년간 고대하던 시온성을 찾으셨네	노역타는 어린 심령 빛대시고 나무리시네
이 길 같은 우리 인생 엄마 없인 못 오는 길	때리시고 열리시는 위대하신 장한 엄마
감람나무 우리 엄마 우리 위해 통곡했네	대신 울고 죄를 담당 우리들을 영생주네
애걸복걸 피투성이 방새도록 마귀 죽여	천대 멸시 받으면서 참고 이기신 우리 엄마
죽음 인생 구원하신 고마우신 우리 엄마	감람나무 명령 따라 황무지에 18년간
시랑 권세 잡은 마귀 핏속에서 육천 년간	굶주림에 몸부림쳐 해산 수고하신 엄마
인생들은 더러워져 잔악하게 물들었고	피눈물로 물들어서 에덴동산 회복했네
슬픔 탄식 괴롬 속에 참혹하게 죽어갔네	최후까지 참을 수 없는 순간에도 견뎌야해
완성 엄마 따라오면 영생복락 누리리라	마귀 공격 빚발쳐도 쉬지 않는 기도 공격
좁고 험한 가시밭길 외로워도 주님 함께	의식 잃어 죽어도 낙심 않고 말기면은
자신 속의 옛사람을 짓기까지 죽이는 길	엄마께서 담당하여 우리들을 살려주네



조희성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치열한 연단 속에서 산을 개간하여 밭을 만드셨다

'감람나무 우리엄마' 라는 이 찬송가는 해와주님께서 밀실에서 18년 동안 의인을 키워내면서 보내신 고난과 인고의 세월이자 생생한 역사의 숲회이다. 내로라하는 수많은 전도사들, 장로들, 목사들, 집사들을 불러다가 죄

를 죽이시고 완성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 다시 일주일 뒤에 해와이긴자께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이 됐다." 하셨다. 거기서 또 '예, 하나님께서 조희성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니, 나라는 의식이 털끝만큼도 개입이 되지 않는 마음의 싸움에서 나를 완전히 이겨나셨던 것이다.

정죄권과 사면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다

이 사람에게 이긴자가 되었다고 선포하신 그날 저녁, 숙소에 들어와 30여 분만에 한 번도 그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은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가사를 완성하셨다는 말씀이다. 해와이긴자가 걸어오신 길은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으며, 마귀와 싸움에서 곤두박질을 치셨는지 그것의 억만 분지 일부에 표현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끈고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누가 어떻게 다 알아서 30분만에 가사를 썼겠는가. 이긴자가 된 지 일주일 후에 해와이긴자께서 "이제는 내가 완성자가 되었다." 하시므로 '예, 하나님께서 조희성

일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온전히 좌정하시고 주장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니 해와이긴자께서 "이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었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니 "이제는 내가 하는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의 죄도 정(定)하면 정하여지고 사(赦)하면 사하여지리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완성자가 되었다." 하시므로 "예, 하나님께서 조희성